

#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 최태원… SK, 女·전문경영인 확대

(SK그룹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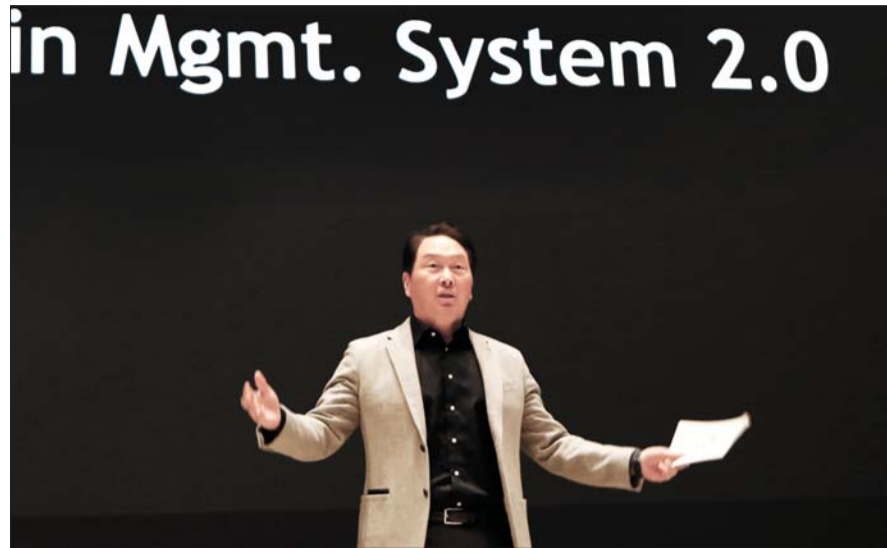
12개 상장사 사외이사 비중 ↑  
전문·다양·독립성 강화 위해  
추천 후보 12명 중 7명이 여성  
전문 경영인 출신도 7명 차지  
사내이사는 25%→22%로 ↓

SK그룹 각 상장사들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여성 및 전문경영인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신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올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한층 커지는 등 SK가 최근 수년간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지배구조 고도화 관련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SK 12개 주요 상장사들은 이사회를 열어 총 1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이달말까지 주총에서 이들을 신규 선임할 계획이다. 특히 12명 사외이사 후보 중에 7명이 여성이고, CEO(최고경영자)급 전문경영인 출신도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SK그룹 12개 상장사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2’에서 강연하고 있다. /SK

사회의 여성이사는 총 19명으로, 여성 이사 비율이 지난해 대비 7%포인트 높아진 21%가 될 전망이다. 전·현직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도 모두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외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5%에서 25%로 10%포인트 높아진다.

그동안 국내 주요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여성이사 비율이 낮고,

특히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K(☞)는 인수·합병(M&A) 전문가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 외국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고, SK이노베이션은 김주연 전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과 이복희 롬엔드하스전자재료씨엠피코리아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또 SK텔레콤이 오혜연 KAIST AI

(인공지능) 연구원장, SK하이닉스가 김정원 전 한국 씨티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행장, SK네트웍스가 채수일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아시아태평양 금융부문 총괄대표, SKC가 채은미 전 페덱스코리아 사장과 김정인 하이퍼리온 지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12개 상장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확대된다. 올해 사외이사는 총 56명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지난해 60%에서 63%로 높아진다. 반면 사내이사는 22명으로 지난해 25%에서 22%로 축소된다.

SK 관계자는 “이달 말 주총이 마무리되면 SK 주요관계사 이사회는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며 “그만큼 이사회가 기업가치 창출을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ESG 경영을 선도해온 SK그룹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최태원 SK 회장이 경영화두로 제시한 거버넌스스토리를 추진해왔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최 회장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시장에 증명해 장기적인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SK 관계사 각 이사회는 2021년부터 CEO 평가와 보상까지도 맡는 등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이에 따라 SK 수펙스추진협의회는 ▲사외이사 후보추천 지원 ▲이사회 업무포털 시스템 도입 ▲이사회 평가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개최 정례화 등 이사회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SK 관계자는 “SK그룹은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 경영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각 관계사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기업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삼성, 무선통신 반도체로 초연결 시대 준비

‘엑시노스 커넥트 U100’ 공개  
대용량 정보, 근거리 빠르게 전송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무선 통신 반도체로 영역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21일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을 공개했다.

엑시노스 커넥트는 무선통신 반도체 브랜드다. UWB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반 반도체를 포괄하며 초연결 사회를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엑시노스 커넥트 첫 제품인 U100은 UWB 기반 반도체다. 대용량 정보를 근거리에서 빠르게 전송하는 기능으로, 스마트키와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은 RF와 e플래시 메모리, 전력관리 IC를 칩 하나에 집적해 소형화된 기기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무선전파 도달시간(ToA)과 3D 도래각 기술을 적용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밀하게 거리와 위치 측정, 방향 인식을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안 성능도 높였다. 통신 중 외부 해킹을 막아주는 STS 기능과 보안 HW

암호화 엔진을 탑재했다. 디지털 키값을 저장하고 인증을 공유하는 CCC의 디지털 키 릴리즈 3 표준도 지원한다. UWB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호환성을 검증하는 FiRa 컨소시엄 인증소로 국제 공인 인증도 획득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김준석 부사장은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초연결성, 정확한 방향과 거리, 강화된 보안을 통해 위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도체”라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축적한 통신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근거리 무선통신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올레드 TV 짝꿍’ 사운드바 출시

LG전자는 오는 27일 2023년형 올레드 TV에 최적화된 사운드바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부터 26일까지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제품은 LG 올레드 에보 C와 함께 설치하도록 최적화했다. /LG전자

## LG전자-바야다헬스케어 방문간호 의료기기 사업협력 강화나서

LG전자는 바야다헬스케어와 방문간호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바야다는 방문간호와 방문 요양, 맞춤형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G전자는 바야다와 LG 메디페인을 활용해 공동 사업 개발과 제품 판매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G메디페인 구매자에 방문 및 원격간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LG 메디페인은 만성 통증을 완화해주는 의료 기기다. 원인이 없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과 같은 효과로 식약처 정식 인증도 획득했다. /김재용 기자

## 포스코퓨처엠, NCA 양극재 공장 첫 건설

포항에 연산 3만톤 규모 투자 승인  
60kWh급 전기차 30만여대 분량

포스코퓨처엠이 NCA 양극재만을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처음으로 건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일 하이니켈 NCA 양극재의 글로벌 수요증대에 대응하고, 현재 주력 제품인 NCM·NCM A 외에도 고객 및 제품군을 다변화해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 NCA 양극재 공장 투자 건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NCA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양극재로, 배터리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다.

이번 신규 투자 건은 지난 1월 삼성S

DI와 10년간 40조원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 포스코퓨처엠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 건설은 처음이다.

총 투자비는 3920억원이며 포항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 연산 3만톤 규모로 건설된다.

이는 60kWh급 전기차 약 30만여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포항 NCA 양극재 공장은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5년도부터 생산 판매할 예정으로, '23~'24년에는 광양 양극재공장 일부 라인에서 생산되는 NCA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NCA 양극재 전용 공장 건설에 따라 NCA 양극재 수주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기아, 中 전기차 공략 본격 드라이브

준중형 SUV ‘컨셉트 EV6’ 공개  
中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드라이브

기아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21일 기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일 중국 상해 E-스포츠 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아 EV 데이’에서 준중형 전동화 스토츠유틸리티차(SUV) ‘컨셉트 EV5’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중국 전동화 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기아는 2022년 역대 글로벌 최대 판매 등 성과를 소개하며 올해 중국 시장에 전용 전기차를 본격 출시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리더로서의 강한 재도약 의지를 보였다.

송호성 사장은 “올해는 중국에서 EV6와 EV5를, 내년에는 기아 플래그십 SUV EV인 EV9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가장 빠르고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기아의 성

공은 기아 글로벌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는 최첨단의 기술과 다양한 감성적 요소를 결합한 혁신적인 전기차 모델과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기대치를 가진 중국 고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EV Tier-1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호성 사장과 함께 기아 중국법인 총경리 김경현 부사장, 기아 글로벌디자인센터장 카미르 하비브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편 기아는 이날 행사에서 준중형 전동화 SUV인 ‘컨셉트 EV5’도 처음으로 공개해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컨셉트 EV5는 과감한 미래지향적인 스타일과 경계를 허무는 실내 공간을 통해 혁신적인 모빌리티 라이프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기아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전용 전기차를 출시해 중국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이동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